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를 시찰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야외종합훈련장에서 전투원들이 진행하는 장애물극복훈련 및 격술종합훈련, 사격훈련, 초저공강하훈련, 직승기바줄강하훈련, 습격훈련을 지도하시였다.

훈련에 참가한 전투원들의 가슴마다에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일단 명령만 내리신다면 백두산의 폭풍과도 같이, 백두산의 번개와도 같이 단숨에 원쑤의 아성인 서울에 돌입하여 조국통일대사변의 첫 총성을 울리며 무엄하게도 《북수뇌부직접공격》, 《참수작전》, 《평양초토화》를 떠벌이는 불구대천의 원쑤들을 마지막 한놈까지 모조리 쓸어버리고 천만군민의 가슴에 쌓이고쌓인 분노를 가슴후련히 풀고야말 천백배 복수심이 세차게 끓어번지고있었다.

청와대와 괴뢰정부, 군부요직에 틀고앉아 천추에 용서 못할 만고대역죄를 저지르고있는 인간추물들을 제거해버리는것을 기본전투임무로 하고있는 용맹한 특수작전대대의 전투원들은 번개같이 몸을 날리면서 어렵고 복잡한 전투조법들과 동작들을 정확하고도 훌륭히 수행함으로써 맡겨진 임무를 자립적으로, 능동적으로 수행할수 있게 튼튼히 준비된 자기들의 위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전투원들은 훈련을 통하여 무비의 담력과 강철의 의지, 탁월한 지략으로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온갖 책동을 짓부시며 나라의 존엄과 민족의 자주권을 견결히 수호해주시는 위대한 선군령장 김정은동지의 손길아래 천하무적의 강군으로 더욱 억세여지고있는 영웅적조선인민군의 위용을 힘있게 펼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전투원들이 펄펄 난다고, 무쇠주먹, 무쇠덩이라고, 권총이면 권총, 자동보총이면 자동보총 쏘면 쏜대로 목표를 명중시키는데 총알에 눈이 달린것만 같다고, 모두가 일당백이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훈련성과를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는 최고사령관이 특별히 중시하며 제일 믿는 전투단위라고 하시면서 특수작전대대를 당원부대, 군관부대, 대학생부대로 만들데 대한 문제, 사격, 행군, 수영을 비롯한 모든 훈련들을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할데 대한 문제, 훈련지휘관들을 잘 준비시키고 훈련방법과 내용을 끊임없이 개선할데 대한 문제, 모든 전투원들을 정찰, 침투, 습격, 파괴 등 그 어떤 어려운 전투임무도 훌륭히 수행하는 만능병사, 다병종화된 싸움군들로 준비시킬데 대한 문제 등 특수작전대대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적의 심장부에 날카로운 비수를 꽂고 등허리를 분질러놓아야 할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 특수작전대대의 전투원들이 적들과의 판가리결전에서 자기들앞에 맡겨진 영예로운 전투임무를 훌륭히 수행하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면서 쌍안경과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전투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따뜻이 손을 저어 답례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제525군부대직속 특수작전대대의 전투원들은 조국과 인민을 위해 불멸의 군공도자욱을 새겨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 드리면서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주신 전투명령을 결사관철할 불타는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누리에 붙는 불이 되시여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탄생기념일에 즈음하여

오늘 우리 천만군민은 불요불굴의 혁명투사 김형권동지의 탄생 111돐을 뜻깊게 맞이하고있다.

김형권동지의 불같은 한생은 혁명전사들이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며 싸워야 하는가에 대하여 새기여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력사는 자기 인민과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투쟁한 사람들의 업적은 영원히 남아있으며 그들의 위훈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빛난다는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대를 이어 싸워서라도 기어이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한다고 하신 김형직선생님의 유언을 심장에 새기시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지도밑에 혁명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려나가시였다.

김형권동지에게 있어서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친혈육이기 전에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해주신 영명한 지도자이시였다.

하기에 김형권동지께서는 험난한 가시덤불길을 헤쳐나가야 하는 조선혁명의 개척기에 시련과 난관앞에서도 주저하거나 동요를 모르시고 불굴의 신념과 의지, 강인담대한 배짱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뜻을 받들어나가시였다.

파발리에 울린 혁명의 총성

김형권동지의 투쟁에 대하여 생각할 때면 먼저 떠오르는것이 파발리이다.

파발리는 1930년대당시 풍산군 안산면의 두메산골마을이였다.

이곳을 파발리라고 부르게 된것은 지난날 여기에 역참이 설치되고 공문이나 소식을 급히 전달하는 파발들이 드나든데서부터 유래된것이다.

그때 파발리는 북부고산지대치고는 비교적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였다.

일제침략자들은 이곳에 각종 폭압기구들을 설치해놓고 무고한 우리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 투옥, 학살하였다. 특히 포악하고 잔인하기 그지없는 마쯔야마놈이 이곳에 온 때로부터 인민들의 원성은 더욱 높았다.

마쯔야마놈이 얼마나 악착하였던지 이곳 인민들은 그놈을 《오빠시》라고 불렀다.

주체19(1930)년 8월 어느날 파발리에 들어선 조선혁명군 무장소조일행이 주재소앞을 지나갈 때였다.

《오빠시》는 일행을 주재소로 불러들이였다.

주재소에 들어가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오빠시》놈을 쏘아보시였다.

사무실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그놈은 살기띤 눈으로 김형권동지의 아래우를 훑어보면서 별명그대로 마벌처럼 달라붙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몸에 간수하고 계시던 권총을 빼드시였다.

《오빠시》놈은 질겁하여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두손을 싹싹 비비며 애걸복걸하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그러는 놈의 상판을 쏘아보시며 네놈은 조선민족의 철천지원쑤이니 용서할수 없다고 준렬히 단죄하시고 복수의 총탄을 그놈의 가슴팍에 안기였다.

갑자기 울린 총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주재소로 모여들었다.

통당치마를 걸친 녀인들과 헐벗은 어린이들, 더벅머리청년들과 로인들 등 파발리사람들과 장보러 온 사람들로 주재소앞마당은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김형권동지께서는 모여온 군중앞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연설을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우리는 일제놈들과 싸우는 조선혁명군입니다. 우리는 방금 당신들을 못살게 굴던 《오빠시》란 놈을 처단하였습니다라고 하시면서 우리는 모든 힘을 다하여 철천지원쑤 일제놈들을 반대하여 싸워야 합니다, 그러자면 한마음한뜻으로 뭉쳐야 합니다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김형권동지의 연설은 군중을 환희와 새 희망으로 끓게 하였다.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하여 모두가 손에 무장을 들고 싸워야 한다는 김형권동지의 열렬한 호소는 군중의 심장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전 조선인민군 종군기자 리인모동지가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적들에게 체포되여 34년동안 옥고를 치르면서도 끝끝내 《전향문》을 쓰지 않고 혁명적지조를 지켜낸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혁명가는 어떤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살며 싸워야 하는가를 보여준 김형권동지의 그날의 연설에서 커다란 충격을 받았기때문이였다.

김형권동지께서 파발리에서 울리신 총소리, 그것은 우리 인민의 가슴속에 쌓이고쌓인 일제에 대한 울분과 원한을 풀어주는 복수의 총성이였으며 국내인민들에게 조국해방의 신심을 안겨주고 그들을 반일투쟁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킨 혁명의 메아리였다.

꺾일줄 모르는 강의한 투쟁정신으로

조선혁명군 무장소조를 거느리시고 국내깊이에까지 진출하여 광범한 대중속에 혁명의 씨앗을 뿌리며 눈부신 군사정치활동을 벌려나가시던 김형권동지께서는 변절자의 밀고로 불행하게도 적들에게 체포되시였다.

비록 철창속에 갇히신 몸이 되였으나 조국의 해방을 위한 혁명의 길에서는 순간도 투쟁을 멈추지 말고 원쑤들과 끝까지 싸워야 한다는 불굴의 혁명적의지를 지니시고 법정투쟁과 옥중투쟁을 과감히 벌려나가신 김형권동지이시였다.

어느날이였다. 옥중투쟁을 지휘하시던 김형권동지께 뜻밖의 통방신호가 왔다.

그것은 나도 체포되였다, 혁명가의 지조를 끝까지 지켜 목숨으로 비밀을 고수하겠다는 내용의 통방신호였다. 그는 제일 나어린 소조원이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그의 맹세를 굳게 믿으시였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는것만으로는 소조앞에 맡겨진 임무를 다할수 없다고 생각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그에게 지조를 지킴은 혁명가의 초보적인 임무이다, 맡겨진 임무를 결사코 다함이 우리의 본신임무이다, 이제부터 투쟁마당은 감옥이다, 여기에는 팔도강산 도처에서 압송되여온 선각자들과 애국자들이 많다, 그들의 가슴에 혁명의 불을 지피면 앞으로 출옥하여 조국땅 천지에 혁명의 불을 지를것이니 우리는 누리에 붙는 불!이라는 회답을 보내시였다.

김형권동지의 높은 정신세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감동깊은 이야기이다.

오늘도 재판장에서 울려퍼진 신념의 노래가 우리 귀전에 들려온다.

원래 한번 옳다고 생각하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 있든지 기어이 해내고야마는 투지와 부당한것을 보고는 절대로 참지 못하는 불같은 성미를 지니신 김형권동지이시다. 그이께서는 함흥지방법원에서 일제교형리들이 강도적인 살인재판을 벌려놓고 15년의 징역형을 언도하였지만 조금도 비관하지 않으시였다. 오히려 재판장을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심판장으로 만들고 원쑤들을 기절초풍케 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동지들과 함께 혁명가요를 힘차게 부르시였다.

우리는 누리에 붙는 불이요
철쇄를 마스는 마치라
희망의 표대는 붉은기요
웨치는 구호는 투쟁뿐
…

필승의 신념으로 충만된 노래소리는 인민들에게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고 원쑤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하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추상같은 목소리로 일제야말로 우리 강토에 기여든 침략자, 우리 나라의 온갖보화를 략탈해가는 날강도, 무고한 조선인민을 닥치는대로 죽이는 살인자라고 락인하시면서 조선인민은 일제침략자들의 악독한 죄행을 천추에 잊지 않을것이며 천백배로 복수하고야말것이라고 단호히 선언하시였다.

원쑤들을 단죄하시는 그이의 눈에서는 증오의 불이 이글거리였다.

김형권동지께서는 계속하여 《강도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라!》, 《조선독립 만세!》를 소리높이 웨치시였다.

몸은 비록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다 하여도 죽이면 죽일지언정 결코 자기의 정치적신념과 혁명적절개를 굽히지 않는다는것이 김형권동지의 철석같은 혁명신조였으며 드팀없는 의지였다.

혁명위업의 정당성과 승리를 확신하신 김형권동지께서는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힘을 모아 조선인민혁명군이 일제침략자들을 족치고 국내에 쳐들어올 날은 멀지 않았다고 하시며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무장으로 싸우라, 무장을 들고 싸워야 왜놈들을 쫓아내고 나라를 해방할수 있다고 절절하게 호소하시였다.

감옥을 혁명하는 사람들의 또 하나의 투쟁무대로 여기시고 옥중생활의 그처럼 엄혹한 환경에서도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 맡겨주신 혁명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결사적으로 벌리신 김형권동지의 열렬한 혁명정신은 투철한 혁명적수령관과 혁명에 대한 끝없는 헌신성, 불같은 애국충정의 발현이였다.

* *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나라의 독립과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고귀한 청춘을 바치신 김형권동지의 혁명생애와 투쟁업적에 대하여 회고하시면서 그 어떤 역경속에 놓이더라도 김일성장군님께서 주신 혁명과업을 기어이 수행하여야 한다는 자각, 장군님께서 주신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조차 없다는 높은 자각을 지니고있었기에 김형권동지는 그처럼 엄혹한 환경속에서도 옥중투쟁을 힘있게 벌려 원쑤들을 당황망조케 하였으며 조선혁명가의 기개를 남김없이 시위하였다고 교시하시였다.

참으로 불요불굴의 혁명투사이신 김형권동지께서는 만경대혁명일가의 숭고한 혁명정신, 애국정신을 지니시고 최후의 순간까지 누리에 붙는 불이 되시여 조선혁명의 년대기에 불멸의 자욱을 남기시였다.

세월은 멀리 흘렀으나 조선혁명의 혁명기에 혁명적수령관을 신념으로 간직하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전략적방침을 관철하기 위하여 생명의 마지막순간까지 굴함없이 투쟁하신 김형권동지의 고귀한 혁명정신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억세게 전진하는 천만의 대오에 끝없는 활력을 부어주고있다.

본사기자 김철혁

원아들을 위한 사랑의 명령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어린이들과 인민들을 세상에 부럼없이 잘살게 하여 그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가 높이 울려퍼지게 하자는것이 우리 당의 결심이고 의지입니다.》

주체103(2014)년 정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한 인민군부대에서 새로 건설한 수산물랭동시설을 돌아보실 때의 일이다.

랭동시설은 물고기선별 및 세척콘베아, 정판식급동기, 랭동저장실들, 수산물운반에 리용할 지게차, 랭동차 등 현대적인 설비들로 이루어져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짧은 기간에 방파제를 쌓고 부두까지 갖춘 능력이 대단히 큰 현대적인 랭동시설을 건설한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인민군대가 앞으로도 물고기잡이에서 계속 앞장서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그러시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문득 일군들에게 자신께서 오늘 여기에 찾아온것은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대한 물고기보장가능성을 토론하기 위해서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이의 뜻밖의 말씀에 일군들은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우리 원수님께서 지금까지 현대적인 수산물랭동시설에 대하여서만 깊이 관심하시는줄 알았는데 줄곧 원아들을 생각하시였구나. 그들을 잘 돌봐주고 남부럽지 않게 내세우시기 위해 얼마나 마음쓰시였으면 이렇듯 추운 날씨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머나먼 바다가에까지 찾아오시였으랴. …)

잠시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모든 원아들이 부모없는 설음을 모르고 부러움없이 혁명의 계승자, 골간으로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이라고 하시면서 이들에게 물고기를 하루에 300g씩 꼭꼭 먹이려면 년간 그 수량이 얼마나 되겠는가를 몸소 수첩에 계산까지 해보시는것이였다.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의 눈굽은 뜨겁게 젖어들었다. 그들을 미더운 눈길로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인민군대가 다 맡자는 구호가 참으로 좋다고, 전국의 육아원, 애육원, 초등 및 중등학원, 양로원들에 1년 365일 하루도 빠지지 말고 물고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을 인민군대가 맡아하자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를 인민군대에 조직할데 대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명령을 현지에서 하달하시였다. 명령의 구절구절은 일군들의 심장을 쿵쿵 울려주었다.

원아들을 위해 최고사령관 명령이 하달되는 전설같은 화폭이 펼쳐지는 우리 조국.

참으로 이 세상 그 어느 나라에서도 있어보지 못한 사실이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높은 뜻과 크나큰 믿음을 가슴에 새겨안으며 명령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할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수산사업소를 태양절전으로 건설하여 올해 가을부터는 물고기공급을 진행할데 대한 지시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소식을 받아안으며 우리 군대와 인민은 원아들을 위해 천금같은 혁명시간을 바치신 그이의 후대사랑의 세계가 얼마나 숭고한것인가를 가슴에 새기였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달도 채 못되는 2월 3일 감동깊은 화폭이 또다시 펼쳐졌다.

이날 평양애육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애육원원아들에게 곶감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안변의 감이 유명하다고, 그래서 감이 많이 나는 곳에 주둔하고있는 인민군부대들에서 애육원원아들에게 먹일 감과 곶감을 마련하여 보장하도록 최고사령관 명령을 하달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저 하늘의 태양이 따사롭다 하여도 이 땅의 원아들을 위하시는, 조국의 미래를 위해 베풀어주시는 우리 원수님의 사랑에 어찌 비길수 있으랴.

시작은 있어도 끝이 없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하늘같은 사랑과 은정이 있어 원아들만이 아닌 온 나라 아이들과 인민들이 목메여 부르는 《세상에 부럼없어라》의 노래소리가 내 조국의 푸른 하늘가에 그리도 절절하게 울려퍼지고있는것 아니랴.

본사기자 김성남

회상기학습을 통하여 항일혁명선렬들이 발휘한 불굴의 투쟁정신을 따라배우고있다. —동평양피복공장에서— 본사기자 리명남 찍음

청산벌에서의 류다른 경기

뜻깊은 올해의 농사를 빛나게 결속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나가는 농업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미더운 모습을 대할수록 하나의 잊지 못할 이야기가 떠오른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김정일동지는 비범한 령도력으로 혁명과 건설을 현명하게 령도하고있습니다.》

벼가을이 한창이던 어느해의 10월 6일이였다.

이날 풍년든 청산벌에 나오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누런 벼이삭이 파도처럼 설레이는 농장벌을 흐뭇하게 바라보시였다.

만족을 금치 못해하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이곳 관리일군에게 정보당 몇t이나 날것 같은가고 다정히 물으시였다.

그의 대답을 들으시자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사를 잘했다고, 청산리가 세계에 대고 장훈을 부른셈이라고 높이 치하하시면서 벼가을을 언제까지 다하겠는가고 물으시였다.

벼가을을 빨리 하여 어버이수령님께 기쁨을 드려야 한다는 한가지 생각에만 몰두하고있던 그는 미처 타산해보지도 못한채 10월 10일까지 끝내겠다고 씩씩하게 대답올리였다.

관리일군을 대견하게 바라보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그렇게 해보라고 이르시고는 농장을 떠나시였다.

이날 밤 관리일군은 홀로 앉아 생각을 굴려보았다.

아무리 궁냥을 해보아야 이제 남은 며칠동안에 벼가을을 끝낸다는것은 힘든 일이였다. 마음이 급해나기 시작했다. 이런 마음이 농장원들에게도 옮겨져 모두들 어쩔바를 몰랐다.

그러나 괜한 걱정이였다.

그날 밤이였다.

수많은 자동차들이 전조등빛을 번쩍이며 먼 산굽이를 에돌아 마을어구로 꼬리를 물고 들어서는것이였다.

깊은 밤에 무슨 차들인가 하여 관리일군이 어리둥절해있는데 차가 멈춰서더니 누군가가 뛰어내리며 그를 부르는것이였다.

청산리에 자주 나오군 하던 예술부문의 일군이였다.

관리일군의 손을 꼭 잡은 그는 자기들이 오게 된 경위를 자세히 이야기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청산협동농장 관리위원장이 오늘 10월 10일까지 가을걷이를 끝내겠다고 어버이수령님께 말씀을 했는데 농장로력과 지금 나가있는 지원로력만으로는 힘들것 같다고 걱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모레부터 하게 되여있는 예술부문과 출판보도부문의 체육경기대회를 래일로 앞당기고 첫 경기의 한 종목으로 청산협동농장 벼가을전투를 넣어야 하겠다고, 이번에 출전하게 되여있는 모든 선수들과 응원자들을 청산협동농장 벼가을전투경기에 다 참가시켜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벼이삭 하나라도 흘려서는 안되며 그런 단체는 다음경기에 참가할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고 경기준칙까지 설정해주시고 경기판정성원들도 정해주시였다.

이렇게 되어 체육경기력사에 없는 청산리벼가을전투경기가 경기 첫 종목으로 선정되였고 체육경기대회에 출전하는 모든 선수들과 응원자들을 태운 요란한 자동차행렬이 첫 경기에 참가하기 위하여 벼가을전투경기장으로 달려왔던것이다.

다음날 이른아침부터 벼가을경기가 시작되였다.

첫 경기에 참가한 그들은 기세충천하여 번개같이 일손을 놀리면서도 포전에 벼 한알이라도 떨어질세라 알뜰하고 깐지게 벼가을을 다그쳤다.

휴식참이면 논머리에 펼친 예술공연이 청산벌을 들썩하게 하고 밤이면 너도나도 떨쳐나 작업반탁아소와 유치원들을 번듯하게 꾸려주었다.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특이한 경기였다.

그 덕에 농장에서는 그처럼 아름찼던 벼가을전투를 당창건기념일까지 성과적으로 끝내고 어버이수령님께 승리의 보고를 올릴수 있었다.

본사기자